

대부업계 대출승인 10%대 '뚝'

최고금리 인하... 저신용 74만명 돈 빌릴 곳 없어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계 대출 승인율이 10%대로 떨어졌다. 지난달 3일 대부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법정 최고금리가 34.9%에서 27.9%로 7%포인트 떨어져 대부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협회가 러시안캐시·웰컴크레디트·바로크레디트·산외머니·리드코프 등 국내 76개 대부업체의 대출 상황을 조사한 결과 2월 승인율이 1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의 국회 통과를 3월3일이지만, 업계가 이를 예상하고 미리 대출을 간간히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대부협회가 승인율을 조사한 이후 최저치다. 최고금리가 68%에 이르던 2002년 대부업계의 대출 승인율은 48% 수준을 유지했다.

승인율은 2014년 12월 22.8%로 떨어진 이후 꾸준히 낮아지며 2015년 6월 20.4%까지 낮아졌다. 올해 1월에는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대부업계의 승인율은 꾸준히 하락 추세에 있었다"며 "단순히 최고금리 인하로 승인율이 떨어졌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부업계에서는 최고금리 인하가 승인을 하라기 위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대부업 신규 이용자의 신용등급이 상승하게 되고 8·9·10등급의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A대부업체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금리인하 요구가 강해 최고금리가 20%대로 낮아질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며 "이 상황에서 심사를 보수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A대부금융연구원의 '금리상한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구축 규모의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신용등급별 승인비율점은 ▲6등급 27% ▲7등급

30.3% ▲8등급 35.5% ▲9등급 39.1% ▲10등급 51.9% 수준이다.

보고서는 금리가 낮아진 만큼 7등급 이하의 고객은 대부업 이용이 어렵게 되며 이 숫자는 최고 74만명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대출이 거절된 74만명은 결국 불법사금융으로 풀릴 가능성이 크다.

B대부업체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의 강제와 대부업계의 광고제한 또 P2P나 인터넷 뱅킹 등 경쟁업체의 등장도 영향이 있었지만 직접적인 승인율 하락의 원인은 금리인하 때문"이라며 "서서히 금리를 낮춰야 하는데 한번에 큰 폭으로 금리를 내려 충격이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금리인하로 승인율이 낮아지면서 고객 대출 승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승인을 인하는 결국 불법사금융을 양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대부업 최고 금리는 ▲2002년 68%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 ▲2016년 27.9%로 낮아지고 있다.

인진수 기자



예쁜 옷 사주세요

1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6 제19회 코리아패션쇼'를 찾은 시민들이 각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전북중기청, 혁신기업기술개발 지원

11~29일까지 신청·접수

신성장동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원탁)은 2016년도 혁신기업기술개발(혁신형기업과제)사업 을 이달 11~2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접수 받는다.

혁신기업기술개발 사업은 빅데이터, 컴퓨터 SW, IoT(사물인터넷) 등 신성장동력, 고부가 주력산업, 첨단융합 분야의 중소기업형 미래 성장유망 전략분야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이 자유롭게 발굴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규모 약 500억원으로 일반형 R&D, 테마형 R&D, 판매지향형 R&D, 개성공단 입주기업 R&D로 구분되며 4가지 유형 중 1가지만 신청 가능하다.

일반형 R&D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미래 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 233개 전략제품에 대해 지원된다.

테마형 R&D는 신성장동력 및 고부가 주력산업 유망기술(제품), 국제행사 수요제품 등과 관련된 중소기업형 유망품목(47개)에 대해 지원된다.

판매지향형 R&D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B2C(Business to Consumer) 유망제품*(8개) 기술개발에 대해 지원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R&D는 입주기업이 자유롭게 제안한 기술개발 과제를 선발·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서면평가 없이 바로 대면평가로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간 2억5천만원 이내)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 기간 동안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 관리시스템(<http://www.smt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하면 된다.

/정영수기자

프랑스 화장품 'LF' 국내시장 진출

화장품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K-뷰티 열풍에 대박을 터뜨리는 업체들이 나오자 비전문 업체들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전통적인 패션 기업 LF는 오는 6월 프랑스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불리 1800'을 국내 시장에 공식 론칭하며 화장품 사업 확장에 나선다.

이 브랜드는 뉴욕과 파리에서 활동한 아트 디렉터 린단 투아외와 프랑

스 뷰티 전문가인 빅투아드 타이와 부부가 만들었다. 아시아 진출은 대만에서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LF는 기존 편집숍에서 일부 화장품 브랜드를 판매했지만, 불리 1800 론칭으로 화장품 사업을 보다 확장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플래그십 매장을 오픈하고 LF몰 등으로 유통망을 넓힌다.

LF 관계자는 "기존에 편집숍에서 일부 화장품을 선보여왔다"며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확장해가는 측면에

'K-뷰티' 열풍따라 사업 확장

서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직접 제조 등으로 진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도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며 화장품 사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지난 2014년 롯데동 동부사점에 화장품 편집매장으로 '라코스메피크'를 처음 선보인 롯데백화점은 지난 3월 홍대에 오픈한 전문점 엘큐브에서 '라코스메피크' PB 상품을 선보였다.

/이성주기자

노사발전재단 전북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LS엠트론 퇴직예정자 16명 대상 전직교육

"퇴직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불안하고 막막했는데 노사발전재단 전북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마련한 전직스쿨에 참여하고 나서 퇴직이후의 삶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지난 8일 노사발전재단 전북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LS엠트론 노사와 공동으로 실시한 LS엠트론 전직스쿨 한 참여자 소감이다.

노사발전재단 전북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LS엠트론 기술교육이카데미교

육관에서 LS엠트론 생산직 퇴직예정자 16명 대상으로 퇴직자 전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LS엠트론 퇴직예정자 전직스쿨 과정은 노사발전재단 전북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지난 2015년 LS엠트론 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두 번째 운영이다.

이날 교육은 재직근로자를 위한 생애설계프로그램부터 퇴직예정자를 위한 재취업지원 프로그램까지 단계별 생애경력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신광영 기자

특히 재취업에 대한 목표설정과 구직전략 컨설팅, 면접 시뮬레이션 등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체계적인 구직스킬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성공적인 재취업과 직장 적응을 지원했다.

노사발전재단 전북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김인수 소장은 "중장년의 신속한 재취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퇴직 전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며 "퇴직 전 인생 후반부를 미리 준비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인 전직스쿨을 전북지역 내 기업들이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도내 한·육우 사육마릿수 감소

지난분기대비 9000마리 ↓ 젖소, 전분기대비 2.9% 늘어

전북지역 가축사육마릿수가 한육우, 오리는 지난분기 대비 감소했지만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내용은 2016년 1/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한육우는 30만8,000마리로 지난분기대비 9,000마리(-2.8%)가 감소했다.

이는 사육규모와 2세 이상 마릿수 감소 때문이다. 실제 2세 이상 마릿수는 2015년 12월 13만7,000마리에서 2016년 3월 12만9,000마리로 감소했다.

반면 젖소는 3만3,000마리로 전분기 대비 2만9,712마리 대비 858마리(2.9%)가 증가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젖소 송아지 생산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돼지 사육마릿수 역시 122만8,000마리로 전분기 대비 1만2,000마리(1.0%)가 증가했다. 산지가격하락과 모돈 마릿수 증가 등이 원인이다.

산란계 마릿수는 335만마리로 전분기 대비 17만8,000마리가 증가했다. 계란산지 가격하락에 따른 출하 감소로 전분기 대비 증가했다.

실제로 2015년 3월 특란 10개 가격은 1,293원이었다면 2016년 2월에는 939원으로 하락했다.

/신광영 기자

전북銀, 외국인 우대 전용상품 'JB Bravo KOREA 통장' 출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택)은 국내 거주 외국인 우대 전용상품인 'JB Bravo KOREA 통장'을 1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번에 출시된 상품은 임출금식 예금으로 가입 대상이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한정된 외국인 특화상품이다.

'JB Bravo KOREA 통장'은 일정 우대조건 충족시 전자금융이체수수료, 입출금 내역통지서비스(SMS)수수료, 전북은행 CD/ATM 현금인출수수료, 타행 CD/ATM 현금인출수수료(월 5회), 외화 타발 송금수수료(월 1회) 면제, 외화 환전시 환율 50%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JB 해외자동송금서비스'를 추가로 가입 할 경우 창구송금대비 당발송금수수료를 50% 저렴하게 송금 가능하며, 송금결과 SMS 통지 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다.

/정영수기자

한전 익산지사, 마라톤 대회 참가

한국전력 익산지사(지사장 문태영)는 지난 9일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펼쳐진 제13회 사랑의 거북이 전국 마라톤 대회 현장에 찾아 사랑과 희망을 나눴다.

거북이 마라톤 대회에는 전국에서 7,000여명이 참가했으며 장애인 마라톤 대회로는 전국 최대 규모이다.

이날 한국전력 직원들은 이날 물티슈 등 편의용품 등을 나눠주며, 참가자들의 도전과 희망을 응원하는 한편, 노력자들의 행사장 이용을 지원했다.

한국전력 익산지사 관계자는 "한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본연 임무 실천은 물론 각종 지역행사에도 꾸준한 관심과 참여를 이어가고 있다"며 "소통문화 확산을 통해 고객감동 경영에 앞장 설 것"이라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값 100%폭등 배추·무' 비축물량 대방출 시작

특정 지역에서 전년 대비 100%까지 가격이 폭등한 배추와 무값 안정화를 위한 비축물량 대방출이 시작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T)는 높은 가격이 지속 중인 배추·무값 안정을 위해 최근 도매시장에 비축수매품을 집중 방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T는 올해 초 한파와 폭설 등 기상이변에 따라 겨울배추와 겨울무 공급량 감소가 예상돼 해당 품목의 수매·비축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한 바 있다.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 입찰을 통해 겨울배추 3500t과 겨울무 5500t을 수매·비축했다.

지난달 11일부터 방출이 시작된 배추·무는 지난 5일부터 1일 180~200t이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 등으로 집중공급 되고 있다.

/이성주 기자

한분 한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 체육중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